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감당할 수 있다면 즐겨라”

‘쾌락주의자’ 박나래의 YOLO 라이프



연예계에서 옴로 라이프를 즐기는 대표주자는 개그우먼 박나래로 통한다. 그는 자택을 실내포장마차 수준으로 꾸며놓고, 시간이 날 때면 술친구들을 초대한다. 1분1초를 쏘 개서라도 인생을 즐기는 박나래를 통해 옴로 라이프를 조명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내가 가장 재밌어야지
조연인 타인이 더 즐거워야할 필요가 있나

나래바는 누구나 편하게 한 잔 하는 공간
30대 되면서 체력 달려…다음날 힘들더라

빛 내서 남친 만나라…할부 남았는데 이별
생일 때 내게 연금보험 선물…노후 준비도



개그우먼 박나래가 집 내부에 마련한 '나래바'에서 한껏 분위기를 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곳에서 박나래는 동료 친구들과 순간을 즐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

사진제공 | 제이디엔터테인먼트

“없는 살림에서 즐기고 있죠!”

개그우먼 박나래(32)는 자신은 “쾌락주의자”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나의 인생에서 주인공인 나 자신이 가장 재밌어야지, 조연인 타인이 더 즐거워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다. ‘물개박수’가 절로 나오는 말이다. 그의 말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박나래는 이런 생활을 추천한다. “한 번 뿐인 인생, 오늘이 내일 다시 돌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박나래는 1분 60초,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가능한 한 마음에 품은 일은 행동에 옮긴다. 집 내부에 마련한 ‘나래바(Bar)’는 음자가무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싶어” 만들었다. 그는 “소주, 맥주, 보드카 등 없는 술 빼고 다 있다. 안주도

재료만 있다면 대부분 만들 수 있다”며 웃었다.

“‘나래바’는 누구나 편하게 술 한 잔 하는 공간이다. 집에서 마시면 분위기가 살지 않는다는 말이 싫어서 술집처럼 꾸며 친구들을 초대했다. 지난 10년 동안 대접받고 살아서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어 감사한 일이다. 인테리어 용품과 식기 등은 발품 팔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높은 ‘완성도’로 연예 관계자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나래바’이지만, 최근엔 거의 개점휴업 상태다. 나래바의 안주인이자 주방장인 자신이 너무 바빠서 때문이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밤낮없이 활동하느라 ‘영업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일주일에 한 번 팔로문을 연다.

“30대가 되면서 급격히 체력이 달려, 다음날 일하는데 힘들기도 하더라. 하하!”

그야말로 돈 벌기도, 놀기도 바쁜 인생이다. 시간에 쫓겨 식사와 잠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피곤한 연예인의 생활일지라도 시간을 쪼개 인생을 즐기며 산다는 점에서 박나래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누군가는 연예인의 화려한 삶을 두고 시기어린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박나래는 “들여다보면 별거 없다”고 손사래를 친다. 2015년부터 받은 관심이 지금까지도 “과분하게” 이어지면서 “빛을 갈을 수 있을 만큼 삶의 여유가 조금 생긴 정도”라고 했다.

“안양예고 시절부터 단역 활동으로 용돈을 벌면서 경제관념이 생겼다. 데뷔하고 내가 돈 관리를 직접 하는데, 평평 술 만큼 많이 벌지 않는다. 저축을 하지만, 생활이 쪼들릴 만큼 무리하게 하지도 않는다. 수입에 따라 저금하는 금액을 조절한다. 다음 달 수입을 예상해 이에 맞춰 한 달 생활비 계획을 세운다. 생일 때 나에게 연금보험을 선물해 노후도 준비하고 있다.”

박나래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또 체력적이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무리하기도 한다. 극단적이지만, 여행을 떠나고 싶으면 빛을 내서라도 떠난다.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시절, 남자친구를 만나러 미국 뉴욕행 비행기에 오른 적도 있다.

“최대한 저렴한 티켓을 구하려고 현지 인터넷 사이트를 얼마나 뒤졌는지(웃음). 왕복 티켓을 120만원에 무이자 12개월로 했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괜찮지 않나. 그런데 할부가 끝나기 전에 헤어져 몇 개월을 더 갚았다. 하하!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곳에서의 추억과 용기를 안고 떠났던 마음은 지금까지도 큰 힘이 된다.”

박나래는 “여행은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며 “뽕을 때는 시간이 있지만 돈은 없다. 노후에는 돈은 있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떠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일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 부론

기대를 하고 있는 그의 즐거운 인생은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나래바’의 대표는 저 박나래니깐, 부사장을 찾아야죠. 명의 이전은 없습니다. 하하!”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박나래

▲1985년 10월25일생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우먼 데뷔 ▲KBS 2TV ‘개그콘서트’ ‘폭소클럽2’ ‘개그샤방’ 등 출연 ▲tvN ‘코미디 빅리그’ 시즌3~5 활약 ▲2015년 MBC ‘라디오스타’ 통해 데뷔 10년 만에 인기 ▲2015 MBC 방송연예대상 뮤직토크쇼부문 신인상 ▲이후 각종 예능프로그램 섭렵 ▲2016 MBC 방송연예대상 버라이어티부문 우수상 ▲현재 MBC ‘나 혼자 산다’ ‘우리 결혼했어요’,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코미디 빅리그’ 고정 출연

‘박나래 절친’ 장도연·김지민…같이서 통한다 달라서 즐겁다

■ 박나래의 YOLO 사람인

라이프 스타일도 음식 취향도 ‘극과 극’
장도연-웃음 김지민-사람 코드로 하나

박나래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친’(인스타그램 친구)이 있다. 동료인 장도연 김지민 안영미 이국주 김숙 김영희 박현화 허안나 등이다. 개그우먼이라는 공통의 직업이 이들을 뭉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였지만 박나래는 “코드”라고 말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음이 잘 맞는다”는 이야기다.

“예전에는 스펙 등 주위 환경을 보며 사람을 사귀기도 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주변에 휩쓸리기만 하더라. 이때부터 사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두와 다 친해지려는 욕심을 버렸다.”

그렇게 박나래는 불필요한 인맥을 끊어내면서 ‘코드’ 맞는 친구들과 인생의 즐거움을 새롭게 느끼게 됐다. 신기하게도 정반대의



장도연(왼쪽사진 왼쪽), 김지민(오른쪽사진 왼쪽)은 성격이 달라도 ‘코드’가 잘 맞는 절친이다. 사진출처 | 박나래인스타그램

스타일을 지닌 장도연·김지민과 찰떡궁합이다.

박나래는 취침시간이 늦은 반면 장도연은 ‘아침형 인간’이다. 또 박나래는 찌개 종류를 좋아하지만, 장도연은 단 것을 좋아하는 ‘초당’(초등학생) 입맛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 웃을 수 있는 공감대가 있다. 그렇기에 함께 여행도 갈 수 있는 것이다.

김지민과는 음식 메뉴 선정부터 쉽지 않다. 박나래는 해산물, 김지민은 육류 마니



아다. 서로 만날 때 찌집과 고깃집은 피해야 할 정도로 음식 취향이 극과 극이지만 박나래는 “(김)지민 언니도,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즐기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공통의 관심사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다.

“나의 인생이지만 누군가 함께 했을 때 더 즐겁지 않나. 혼자 여행도 해봤지만,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 내가 느낀 감정을 다른 이도 공유하길 바란다. 나는 내 옆에 누구라도 있는 게 좋다.”

백슬미 기자

관계에 집착하지 말라…‘한때 인맥왕’의 교훈

■ 박나래의 YOLO 5계명

박나래는 32년을 살면서 깨달았다. 여기저기 부딪혀 상처 받고 아무는 과정을 괴로워할 바에 ‘그냥 맞서자’고. 그 결과 2006년 데뷔하고 10년 만에 전성기를 맞는 ‘인생승리’를 일궈냈다. 누구보다 재밌게 살고 있고, 또 살고자 하는 그가 ‘옴로 5계명’을 전한다. 경험을 바탕으로 해 신뢰도면에서 점수가 높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 하라”는 뜻의 라틴어. 박나래의 모바일메시지 프로필 문구다. 한 번 뿐인 나의 인생,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즐기려 한다. 일도, 노는 것도 지금이니깐 할 수 있다. 다음은 없기에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싶다.

●“관계에 집착하지 말자”=사랑, 우정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한때 ‘인맥왕’처럼 보이려고 주변 모두를 챙기려는 강박관념에 휩싸였다. 내가 쏟은 만큼 상대방도 해주길 바랐지만 현실은 달랐다. 마음의 상처가 됐다. 멀어지더라도 인연이 아니라고 마음 편히 생각하려 한다.

●“또 다른 ‘나’가 되자”=공식적으로는 개그우먼 박나래이지만, DJ 나래로 불리기도 한다. 하나의 나에 얽매이지 않고 싶다. 나의 존재를 모르는 곳에서 미친 듯이 놀고 술도 마셔 보고, 내가 몸매 좋아 노출을 하겠다. 맞다. 일탈이다. 하지만 팍팍했던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무리하지”=술, 패션, 인테리어, 여행 등을 좋아해 돈을 많이 쓴다. 하지만 이달 지출과 다음달 수입을 계산해 돈과 ‘밀당’한다. 빛을 저서라도 여행을 가는 스타일이다. 전제조건은 있다. 반드시 무이자로 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고(GO)!

●“내 인생에 대한 용기와 책임”=용기가 없다면 또 다른 내가 될 수도, 무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때 용기는 생겨나는 법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저지르고 보자는 심산으로 인생에 접근해서 안 된다. 뒤처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책임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백슬미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